LIG House Book

2016/02/29

전략을 論하다

02 | 전략 Talk: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는 전략
09 | 경제 Point: 주간경제전망
11 | 차트 Point: (1) 2016 GDP Consensus
12 | 차트 Point: (2) 경기선행지표
13 | 차트 Point: (3) 밸류에이션

LIG 투자증권

전략 Strategy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는 전략

Strategist 윤영교 • 02)6923-7352 • skyhum00@ligstock.com

미국 금리 인상에 적절한 시점

주말 사이에 발표된 미국의 2015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전분기대비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를 반기는 눈치입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금리인상을 해야 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준은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과잉투자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잠재된 물가 상승 요인, 하반기부터 힘을 발휘할 전망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가 속도가 둔화될 뿐입니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이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확고한 신호로 해석되면서 투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방향성(증감 여부)은 금리인상 여부의 신호가 되는 물가전망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물가전망은 유가를 제외한다면 자산(부동산)가격과 달러화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물가지수 안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달러의 방향입니다.

미국 의회는 BHC법안을 통화시키면서 달러 강세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저유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부터 미국의 물가상승 속도는 생각보다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물가에 따라 시장의 주도 업종도 바뀐다.

필자의 예상대로 상반기 말부터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미국 증시는 2015년부터 이어진 소비재 업종 우위 국면에서 벗어나 산업재 우위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산업재 업종은 2000년대에 중국 특수를 톡톡히 누리면서 미국에 비해 변동성은 컸지만, 미국과 방향성은 항상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국내 물가가 반등한다면 국내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산업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는 2분기까지는 소비재에서, 상반기 말부터는 산업재에서 투자 성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미국 금리 인상에 적절한 시점

미국의 2015년 4분기 성장률, 시장이 반기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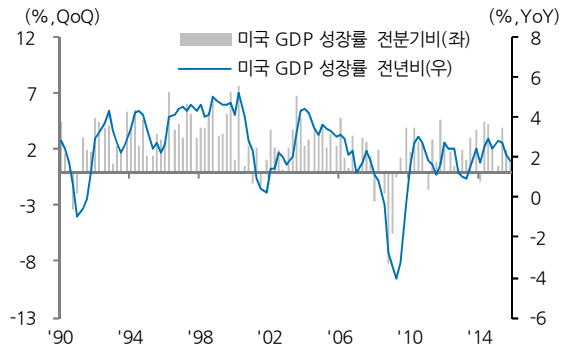
미국의 2015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0%(연율화)을 기록했다. 지난 달에 발표된 속보치 대비 0.3%P 상향 조정됐다.

주요 항목 중 민간소비가 0.2%P(+2.2%→+2.0%) 하향 조정된 반면 민간투자는 1.8%P(-2.5%→-0.7%) 상향 조정됐다. 재고자산이 늘어난 것도 민간투자 상향 조정의 원인이지만 속보치에서 부진했던 설비투자가 개선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달러 강세가 소비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수출에는 우려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속보치 발표 당시 -2.5%였던 수출 증가율은 -0.4%로 상향 조정됐다. 소비가 줄면서 수입도 동반 감소했으나 소폭에 그쳤다(-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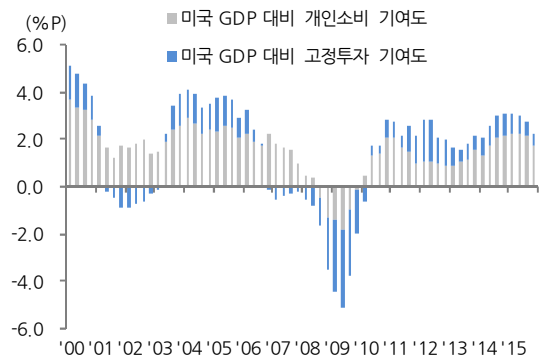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를 반기는 눈치이다. 이 정도면 성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연준이 3월, 혹은 4월에 금리인상에 나서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GDP 발표 후 4월과 6월 금리인상 확률은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조정폭은 크지 않았다.

<그림1> 미국 GDP 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미국 GDP 내 개인소비 및 고정투자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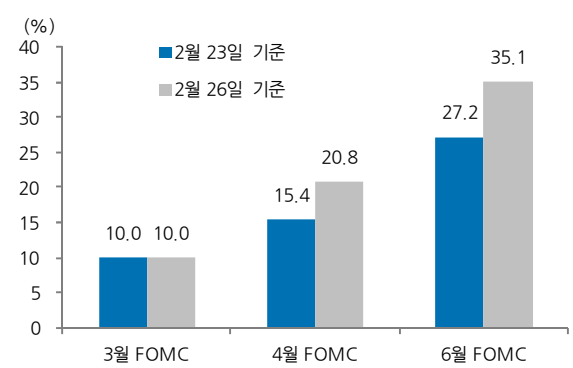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미국 GDP 내 수출 및 수입 추이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GDP 발표 전후 금리인상 확률 변화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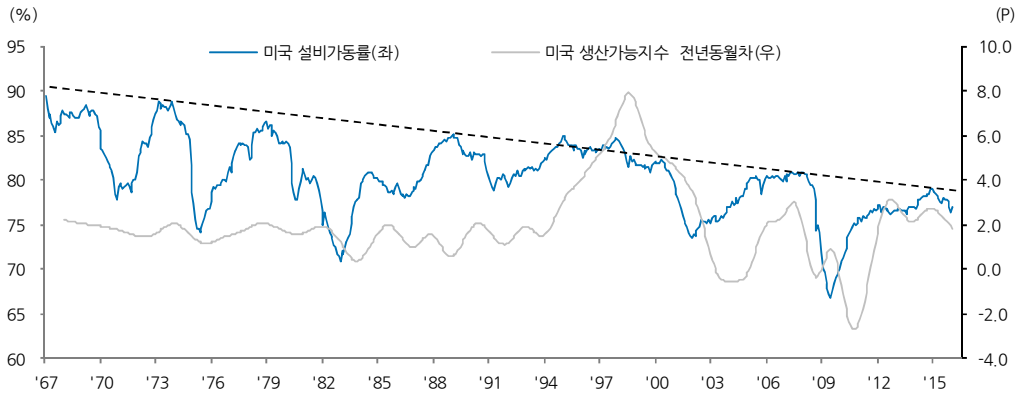
과잉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미국 설비투자 추이

하지만 연준은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소비는 여전히 흐름이 견조하고, 투자는 생각보다 강해 과잉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설비가동률은 2014년 하반기에 장기 추세선 상 고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저유가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경기가 회복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투자가 크게 증가해 유휴설비가 늘어난 것이 더 큰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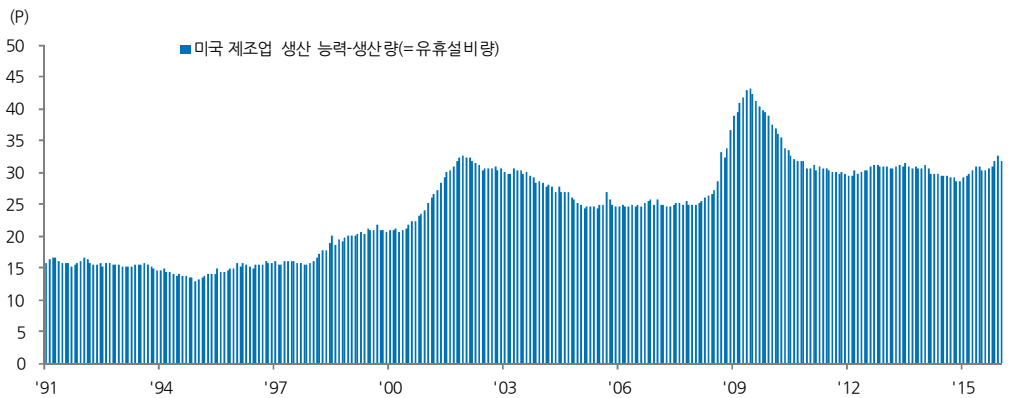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잉투자는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연준이 금리인상 사이클을 재개하기에 적당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그림5> 장기 추세 상 고점을 보고 하락하는 미국의 제조업 설비가동률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미국 유휴설비량 증가, 조정이 필요한 시점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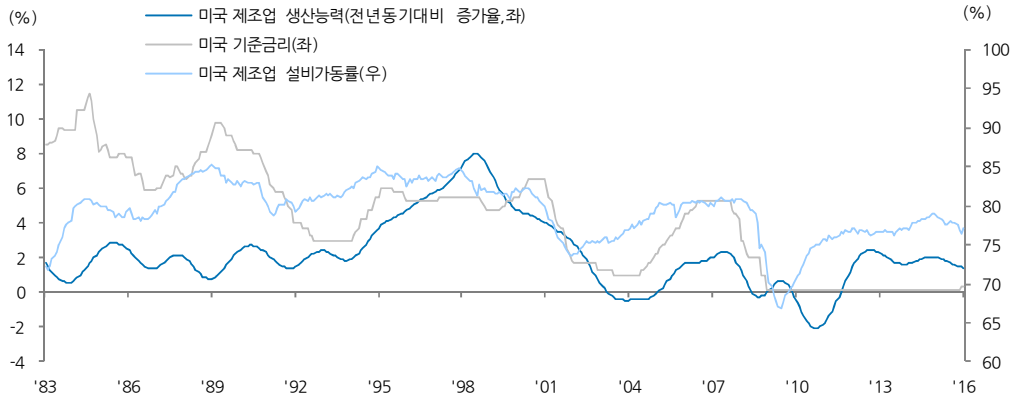
잠재된 물가 상승 요인, 하반기부터 힘을 발휘할 전망

미국의 투자 방향을 쥐고 있는 것은 물가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유효수요 증가)진다는 시그널이다. (일부 부실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투자를 계속 늘려도 좋다는 데이터 상의 증거가 된다.

금리가 인상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해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둔화될 뿐이다. 투자의 방향성(증감 여부)은 금리인상 여부의 신호가 되는 물가전망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림7> 정책 금리가 올라가면 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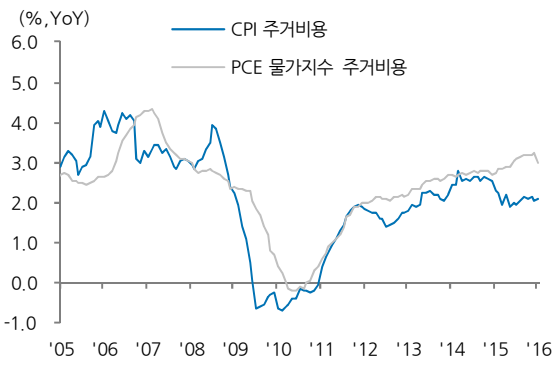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의 물가 방향을 쥐고 있는 것은 자산가격과 달러

현재 미국의 물가전망을 결정하는 Key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자산가격(부동산)이고, 또 하나는 달러 가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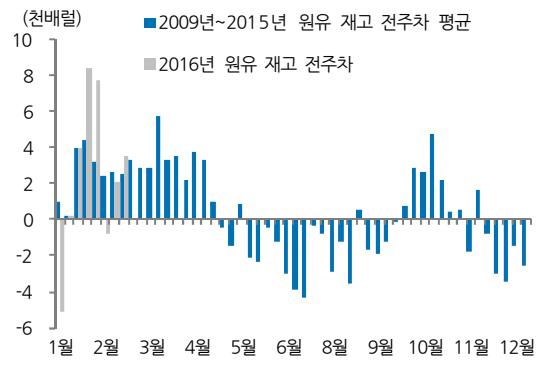
먼저 부동산 시장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물가지수 중 주거비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부문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정도이다. 따라서 저유가 효과가 해소되는 하반기부터는 이 효과만으로도 물가 상승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림8> 미국 물가지수 내 주거비용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미국 원유 재고의 계절성



자료: EIA,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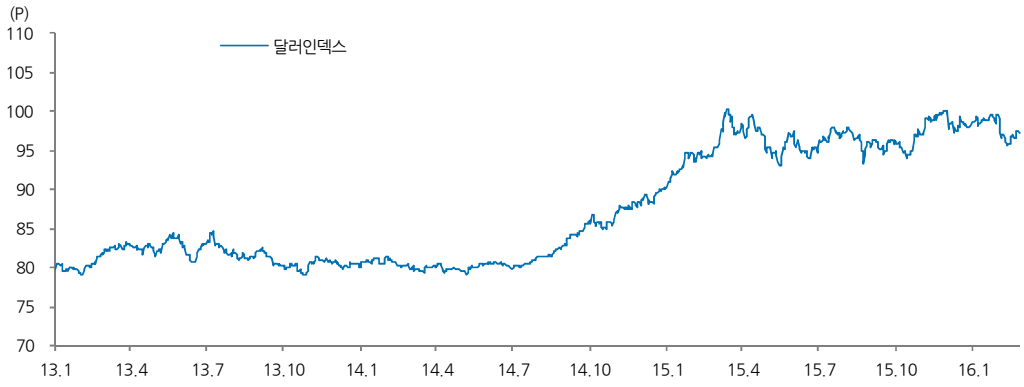
두번째로, 미국 정부가 달러 강세를 제어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는 것이 물가전망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외환시장 개입국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BHC(베넷-해치-카퍼)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환 방어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다.

필자는 이 법안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포석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2년이나 진행됐고, 최근에는 오히려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 강세를 이제 와서야 잡겠다고 하는 이유가 달리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달러 강세가 잡히면 순차적으로 수입물가 상승과 소비자물가 상승 기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림10> 2년이나 지난 달러 강세 트렌드를 이제 와 바꾸겠다는 이유를 생각해 볼 시점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물가, 상반기까지는 잠잠, 하반기부터 상승 전망

공급과잉 문제로 국제유가가 상반기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어렵다. 따라서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되는 상반기까지는 달러 약세 및 부동산 가격 효과가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원유 공급 과잉 압박이 완화되는 상반기 말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달러 강세 약화 효과가 물가지표에 반영될 것이다. 물가 상승 속도는 3분기에 가장 빠를 것이고, 그 이후에도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물가에 따라 시장의 주도 업종도 바뀐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산업재 우위 국면으로 변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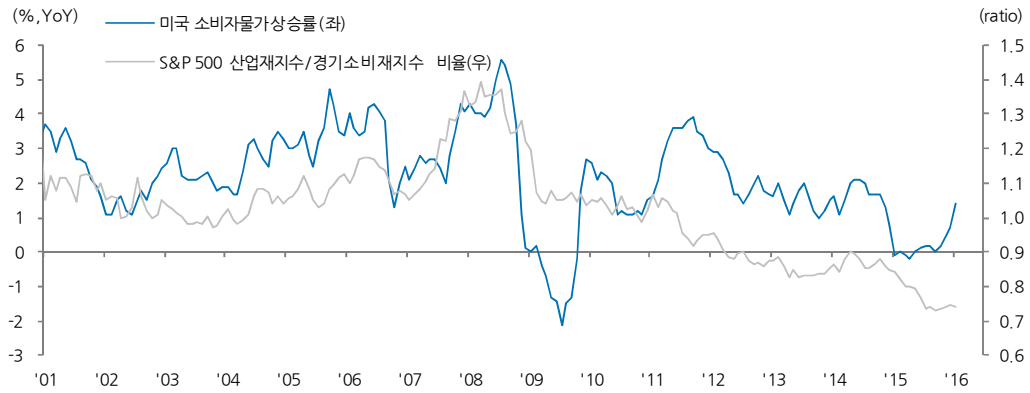
필자의 예상대로 상반기 말부터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미국 증시는 2015년부터 이어진 소비재업종 우위 국면에서 벗어나 산업재 우위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한국과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012년 이후에는 상당히 유사한 궤적을 그린다. 다만 2013년부터 시작된 물가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하반기 물가 상승 속도도 미국에 비해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은 일치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재 업종은 2000년대 초반~중반, 중국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때문에 이 기간에 미국 산업재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크기는 했지만, 방향은 거의 일치한다. 누가(어느 나라가) 더 큰 수혜를 누리느냐의 차이이지 결국 해당 산업의 사이클 상에서 방향은 엇갈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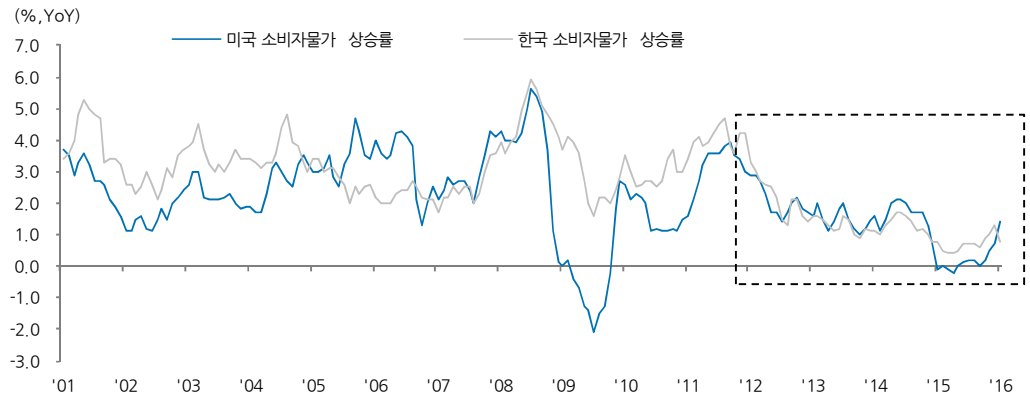
따라서 미국의 시장 주도업종이 바뀌고, 국내 물가가 반등한다면 국내에서도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산업재로 옮겨갈 수 있다. 최근 수년 간 미국에 비해 이 업종의 performance가 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비교적 클 가능성도 고려해 두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림11>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산업재지수/경기소비재지수 비율 추이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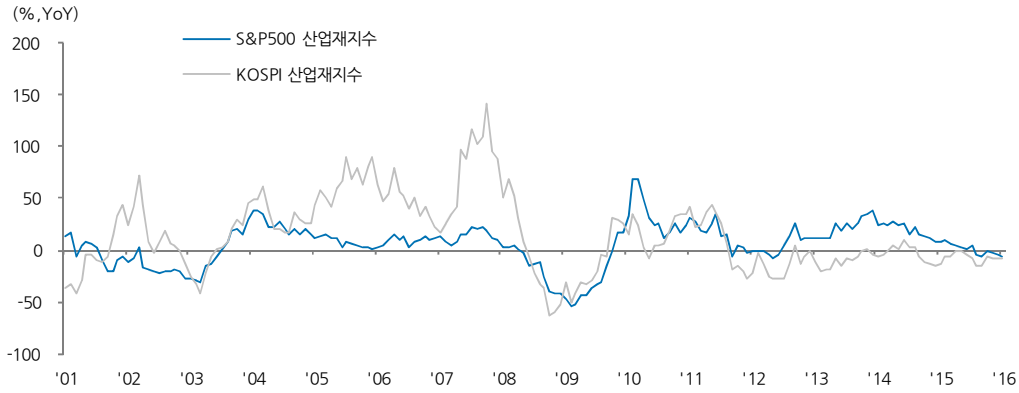
<그림12> 2010년 이후 방향과 레벨이 비슷해 진 양국의 소비자물가, 유가가 급락한 2013년 이후 낙폭은 한국이 작음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그림13> S&P500 산업재지수 및 KOSPI 산업재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설비투자가 과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금리인상이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유효 수요 증가)한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3) 미국 물가는 하반기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물가가 본격적인 반등을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이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4)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하반기부터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산업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물가가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는 2분기까지는 소비재에서, 상반기 말부터는 산업재에서 투자 성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경제 Point: 주간 경제전망

Economist 김유겸 • 02)6923-7332 • yukyum@ligstock.com

중국 전인대의 경제관련 결정과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기업심리와 연준(Fed) 베이지북과 심리지표에 주목

전인대 개막전, 기업심리지표는 경기부양 필요성을 지지할 전망

전인대(5일) 개막을 앞두고, 기업심리지표는 경기부양 필요성을 지지할 전망. 중국은 3월 3일(목,이하 현지시각)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토)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 등 연간 최대정치행사인 양회를 개최함. 시장은 중국의 경기부양 의지와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지출 확대와 성장목표가 주된 관심 대상임. 관련하여 주중 발표되는 2월 NBS 제조업/서비스업 PMI, 차이신 제조업 PMI(1일)와 차이신 서비스업 PMI(3일) 등 기업심리는 부진이 지속되며 경기부양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강화시킬 전망

미국은 연준의 베이지북과 고용지표를 주목

미국은 연준(Fed)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베이지북과 고용지표를 주목. 연준(Fed)은 베이지북(2일,수) 발표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국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3월 기준금리 동결에 재차 힘을 실어줄 전망. 반면 2월 고용지표(4일,금)는 취업자 증가수가 확대되고, 시간당 평균 임금의 상승 흐름이 이어져 차기(4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전망. 그 밖에 ISM 제조업지수(1일,화)와 서비스업지수(3일,목) 등의 경제지표는 소폭 호전되어 경기우려감을 줄여줄 전망

유럽과 일본의 경제지표 부진은 정책회의 기대감을 높일 전망

유럽 물가부진과 일본 경제지표부진은 정책회의 기대감을 높일 전망. 유로존은 2월 소비자물가(2/29,월)가 저물가 우려를 지속시키며 3월 10일 ECB 정책회의에서의 추가 부양 기대를 지속시킬 전망. 일본은 1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등이 전월대비 호전되나, 기술적인 반등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BOJ의 추가 정책 필요성을 지지할 전망

3월 1주 경제일정 및 코멘트(02/29~03/06)

날짜	이벤트	전월(기)	전망치
29(월)	미국, 1월 미결주택매매 (%, MoM)	0.1	0.8
	미국,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연설	-	-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 (잠정, %, YoY)	0.3	0.1
	국내, 3월 제조업 BSI (한국은행)	66	-
	국내, 3월 비제조업 BSI (한국은행)	68	-
	일본, 1월 산업생산 (잠정, %, MoM)	-1.7	3.3
	일본, 1월 소매판매 (%, MoM)	-0.3	0.1
1(화)	미국, 2월 ISM 제조업지수	48.2	48.6
	미국, 2월 국내 자동차판매 (만대)	1,379	1,380
	유로존, 2월 마킷 제조업 PMI (확정)	51.0(잠정)	51.0
	유로존, 1월 실업률 (%)	10.4	10.4
	국내, 2월 수출 (%, YoY)	-18.8	-16.2
	국내, 2월 수입 (%, YoY)	-20.0	-15.9
	국내, 2월 무역수지 (억$)	52.0	59.2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3월 1주 경제일정 및 코멘트(02/29~03/06) (Cont'd)

날짜	이벤트	전월(기)	전망치
1(화)	중국, 2월 NBS 제조업 PMI	49.4	49.4
	중국, 2월 NBS 비제조업 PMI	53.5	-
	중국, 2월 차이신 제조업 PMI	48.4	48.4
	일본, 2월 닛케이 제조업 PMI (확정)	50.2(잠정)	-
2(수)	미국, 2월 ADP 민간고용 (만명)	20.5	19.0
	미국, 베이지북 공개	-	-
	미국,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	-
	유로존, 1월 생산자물가 (%, YoY)	-3.0	-3.0
	국내, 1월 산업생산 (%, MoM)	1.3	-0.8
	국내, 1월 경상수지 (억$)	74.6	-
3(목)	미국, 2월 ISM 비제조업지수	53.5	53.5
	미국, 1월 제조업 수주 (%, MoM)	-2.9	1.4
	미국, 1월 내구재 주문 (확정, %, MoM)	4.9(잠정)	-
	미국, 1월 비국방&비항공 자본재 수주 (확정, %, MoM)	3.9(잠정)	-
	유로존, 2월 마킷 서비스업 PMI (확정)	53.0(잠정)	53.0
	유로존, 1월 소매판매 (%, MoM)	0.3	0.1
	국내, 2월 소비자물가 (%, YoY)	0.8	0.9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52.4	-
	중국,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	-
4(금)	미국, 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만명)	15.1	19.5
	미국, 2월 실업률 (%)	4.9	4.9
	미국, 1월 무역수지 (억$)	-433.6	-432.5
	국내, 2월 외환보유고 (억$)	3,672.9	-
5(토)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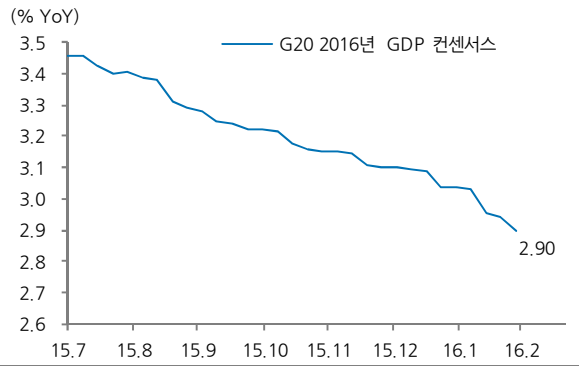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차트 Point: (1) Global 2016 GDP Consen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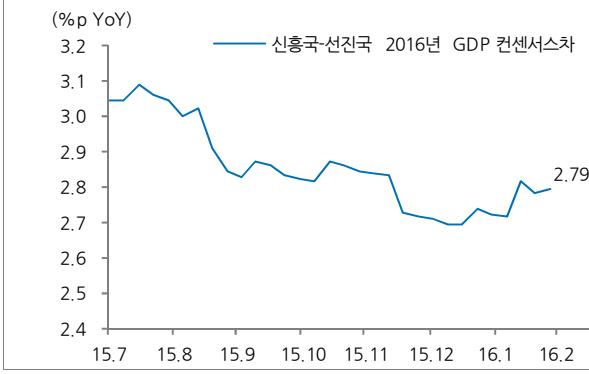
- G20의 2016년 GDP 컨센서스는 전주대비 하락(2.94%→2.90%). 일본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4분기 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컨센서스에 반영됨(1.0%→0.95%). 신흥국 중에서는 러시아가 금속 가격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컨센서스가 큰 폭으로 하락함(-0.9→-1.5%)

2016년 G20 GDP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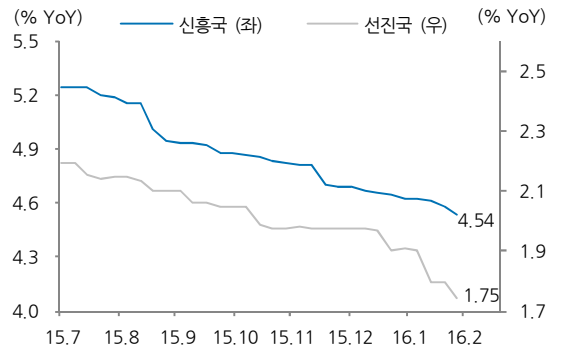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6년 선진국, 신흥국 GDP 컨센서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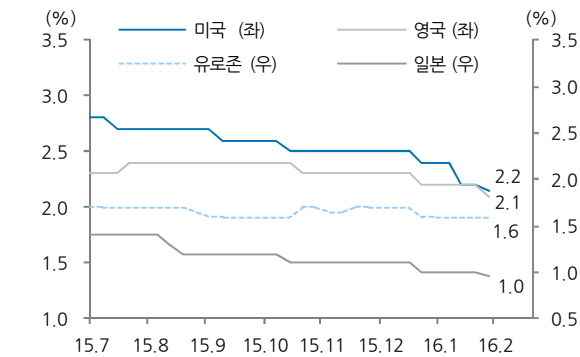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선진국과 신흥국의 2016년 GDP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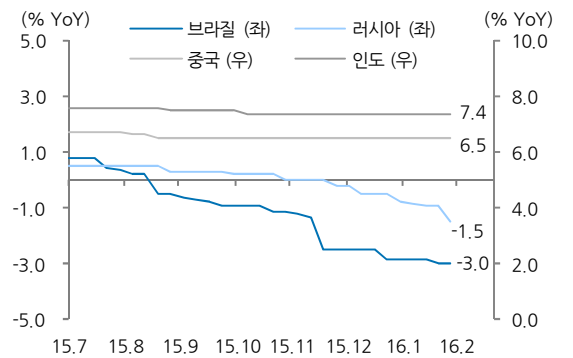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의 2016년 GDP 컨센서스



주: 미국·일본 성장률은 Qo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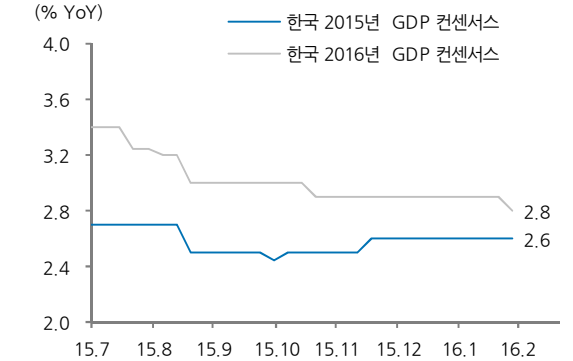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신흥국의 2016년 GDP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5 · 2016년 한국 GDP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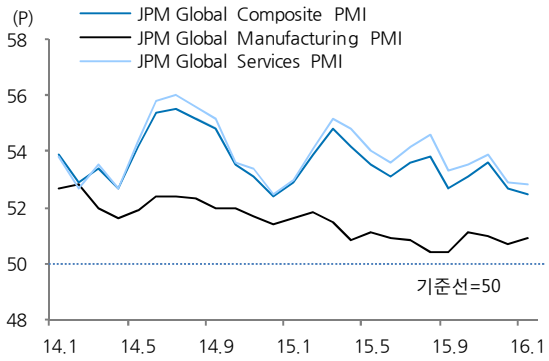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차트 Point: (2) 경기선행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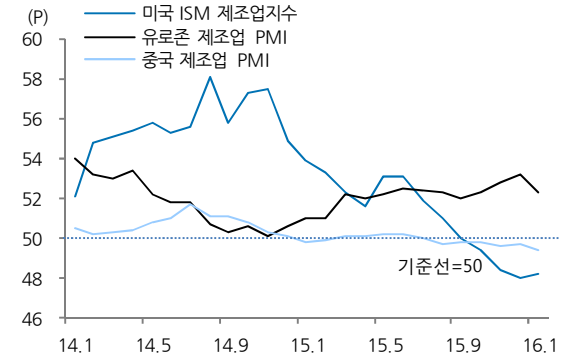
-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서로 엇가리는 모습을 보임. 미국은 내구재 주문(-4.6%→4.9%)과 개인소득(0.3%→0.5%)이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상승반전을 시현함. 반면 유로존은 제조업 PMI(52.3→51.0)와 소비자 물가지수(0.0%→-1.4%)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덱스 하락폭을 키웠음

글로벌 제조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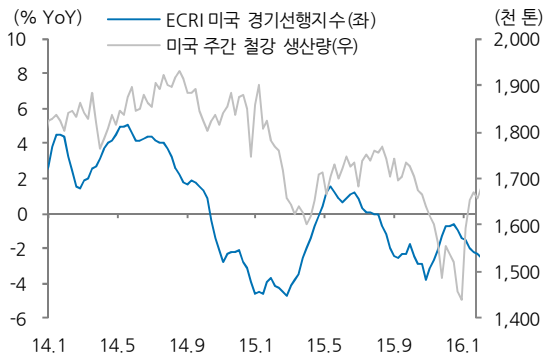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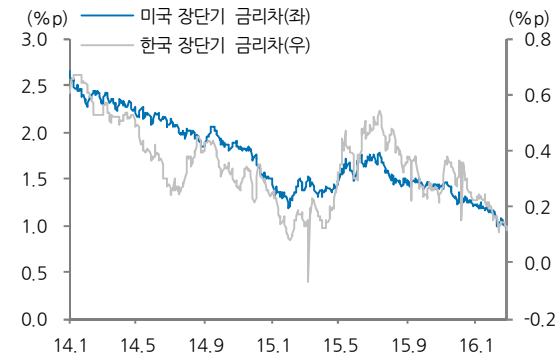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경기선행지수와 주간 철강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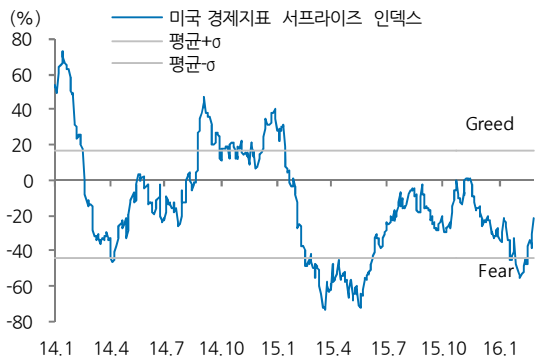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과 한국의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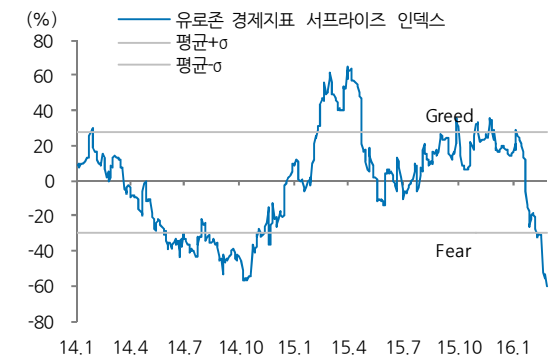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유로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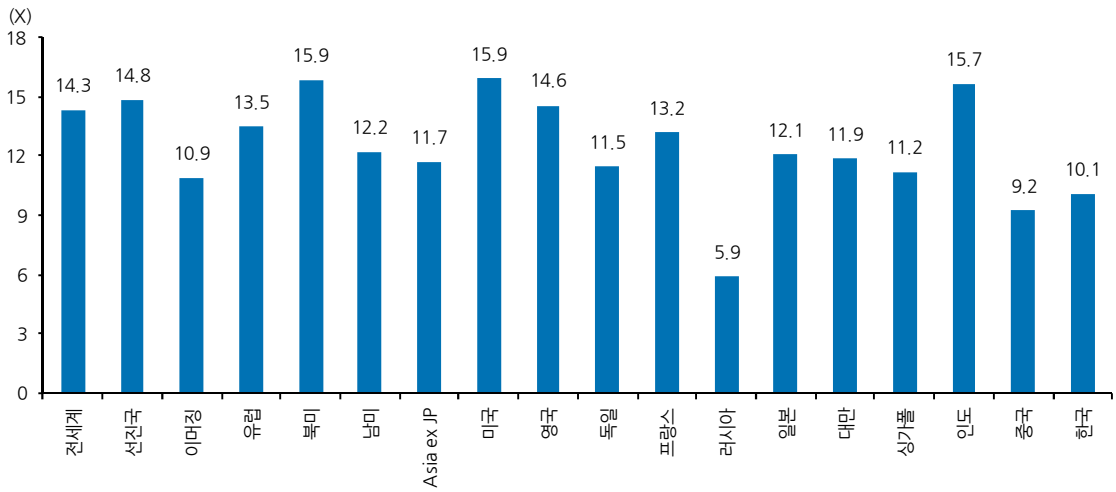
차트 Point: (3) Valuation & Momentum

Quant 염동찬 • 02)6923-7314 • dongchan@ligstock.com

업종별 영업이익 변화율 및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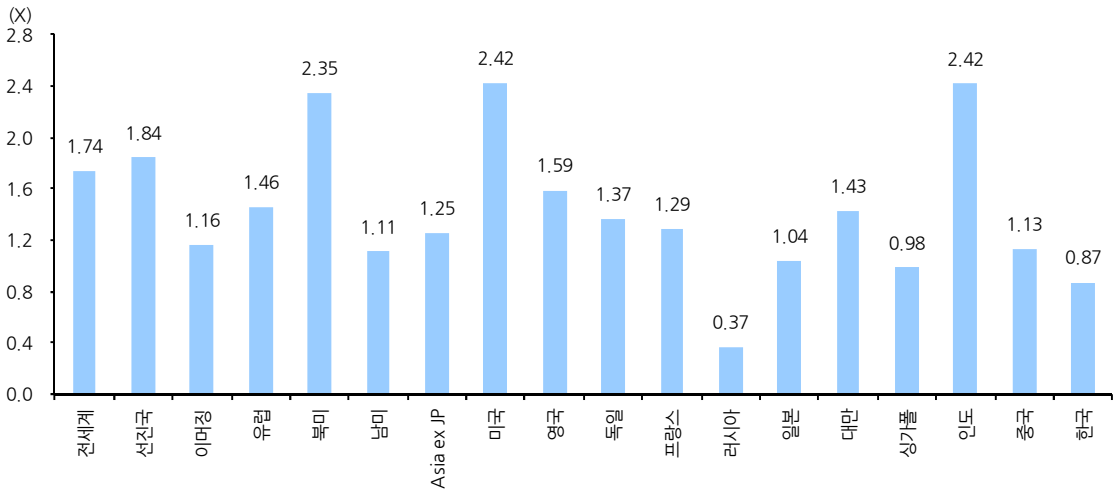
- 지난주 글로벌 이익추정치는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모두 하향 조정되었으며 선진국이 이머징 국가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하향 조정
- 지역별로는 남미 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아시아 지역은 타 지역대비 하향 조정 폭이 적게 나타남

글로벌 주요국 PER(12개월 Fwd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글로벌 주요국 PBR(12개월 Fw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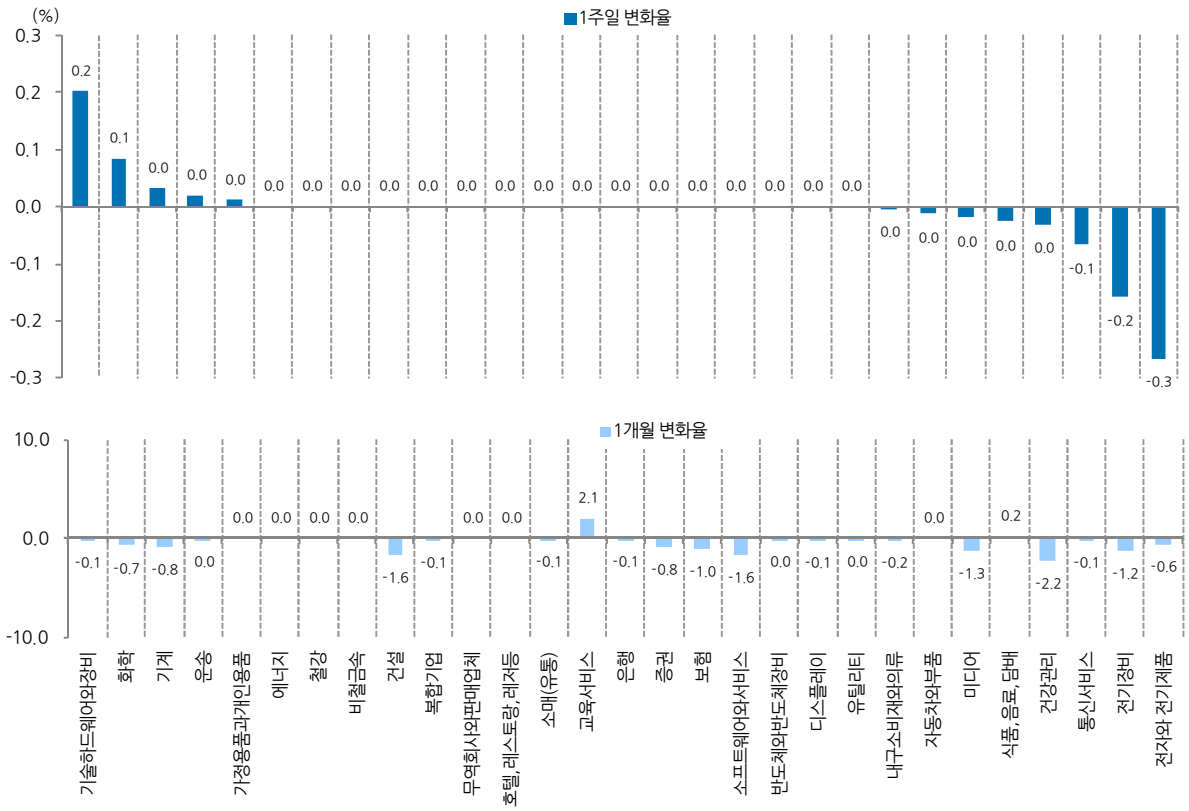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 4/4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되고 2016년 1/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면서, 이익추정치의 변동성이 낮아진 상황은 지속
-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IT업종 이익추정치가 2주 연속 하향 조정된 점 특징적

업종별 2015년 영업이익 변화율



자료: WISEfn,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조정 상위 종목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영업이익(억원, %chg)			12개월 Fwd	
			2015년	1주일 변화율	1개월 변화율	PER(X)	PBR(X)
A004130	대덕GDS	2,109	59	36.0	36.0	8.9	0.5
A056080	유진로봇	1,122	12	24.1	24.1	n/a	n/a
A033240	자화전자	2,748	247	5.7	5.7	9.4	0.9
A009830	한화케미칼	40,080	3,558	1.9	0.4	10.6	0.8
A014100	보령메디앙스	2,255	72	1.2	2.3	20.5	4.0
A068400	AJ렌터카	2,580	431	1.0	0.9	10.8	1.0
A005990	매일유업	5,849	306	1.0	0.7	18.2	1.4
A056190	에스에프에이	11,383	547	0.8	-0.1	18.9	2.0
A054950	제이브이엠	3,279	76	0.4	-0.1	55.1	2.8
A098460	고영	4,819	286	0.2	0.2	15.4	2.9
A030190	NICE평가정보	5,033	308	0.1	0.1	16.2	3.1
A005930	삼성전자	1,700,213	268,012	0.0	0.0	10.5	0.9
A005380	현대차	323,806	65,009	0.0	0.0	6.6	0.6
A005490	POSCO	170,450	25,954	0.0	0.0	14.2	0.4
A012330	현대모비스	250,174	28,616	0.0	0.0	7.4	0.8
A000270	기아차	190,926	24,438	0.0	0.0	6.4	0.7
A032830	삼성생명	225,000	3,237	0.0	0.0	13.7	0.8
A000660	SK하이닉스	224,225	53,745	0.0	0.0	8.6	0.9

자료: WiseFn,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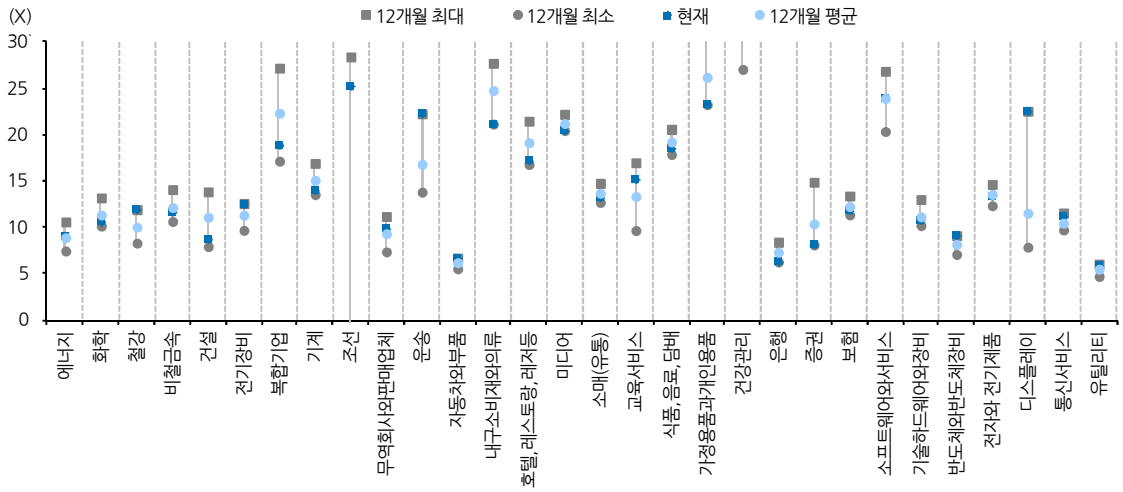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조정 상위 종목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영업이익(억원, %chg)			12개월 Fwd	
			2015년	1주일 변화율	1개월 변화율	PER(X)	PBR(X)
A078890	가온미디어	1,388	216	-13.9	-13.9	5.7	1.1
A036800	나이스정보통신	3,215	280	-8.2	-8.2	11.2	2.1
A007660	이수페타시스	2,340	231	-5.3	-7.6	8.9	1.0
A092200	디아이씨	1,758	306	-3.4	-1.8	7.8	1.0
A082210	옵트론텍	1,131	96	-3.0	-3.0	9.7	1.2
A015860	일진홀딩스	6,440	352	-2.1	-4.7	20.5	1.8
A005610	삼립식품	22,090	574	-1.4	-1.4	40.0	6.8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날	5,940	227	-1.4	1.3	17.2	1.2
A005850	에스엘	6,011	772	-1.1	-0.8	6.2	0.7
A170900	동아에스티	13,915	560	-0.9	-2.5	30.8	2.4
A102710	이엔에프테크놀로지	2,300	381	-0.9	-0.9	5.6	1.2
A12287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5,614	244	-0.6	-3.0	20.2	2.7
A007310	오뚜기	40,902	1,425	-0.4	0.8	30.6	3.8
A002270	롯데푸드	12,311	732	0.0	-0.5	18.2	1.3
A037760	쎄니트	695	85	0.0	0.0	n/a	n/a
A005670	푸드웰	372	42	0.0	0.0	19.4	0.8
A052460	아이크래프트	633	48	0.0	0.0	9.3	1.3
A145270	케이탑리츠	316	83	0.0	0.0	n/a	n/a

자료: WiseFn,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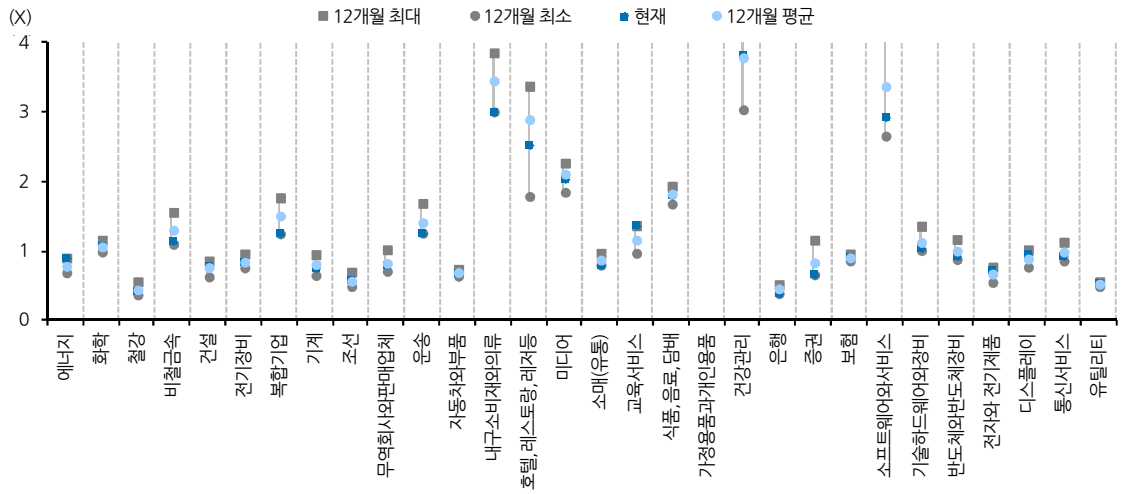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국내 업종별 PER(12개월 Fwd 기준)



자료: WISEfn,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 업종별 PBR(12개월 Fwd 기준)



주: 생활용품 업종의 PBR은 4배 이상

자료: WISEfn,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목표주가 컨센서스 상향율 상위 종목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목표주가(원, %)			12개월 Fwd	
			컨센서스	1주일 변화율	상승여력	PER(X)	PBR(X)
A020150	일진머티리얼즈	4,645	16,000	11.6	35.0	n/a	n/a
A056190	에스에프에이	11,383	66,889	6.5	5.5	18.2	2.0
A096530	씨젠	8,998	48,111	5.0	40.3	n/a	n/a
A036830	솔브레인	6,841	54,000	4.1	30.8	7.9	1.1
A030530	원익IPS	10,666	14,833	4.1	11.9	14.7	2.0
A010060	OCI	21,035	98,571	3.8	11.8	14.8	0.7
A022100	포스코 ICT	6,971	6,950	3.0	51.6	19.1	1.8
A066570	LG전자	104,244	71,316	2.0	12.0	17.5	0.9
A009240	한샘	60,953	315,091	1.8	21.7	39.5	9.3
A036490	SK 머티리얼즈	12,425	150,375	1.7	27.7	n/a	n/a
A041510	에스엠	8,312	57,300	1.5	44.0	27.3	2.5
A005830	동부화재	48,498	79,663	1.5	16.3	10.3	1.1
A004800	효성	44,072	183,000	1.4	45.8	8.2	1.2
A009540	현대중공업	80,940	116,400	1.2	9.3	22.7	0.5
A103140	풍산	7,553	31,533	0.9	17.0	9.9	0.7
A039490	키움증권	13,238	78,923	0.8	31.8	8.7	1.1
A009830	한화케미칼	40,080	30,818	0.7	24.5	9.9	0.8
A011170	롯데케미칼	106,597	375,000	0.7	20.6	8.9	1.2

자료: Fnguide,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목표주가 컨센서스 하향율 상위 종목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목표주가(원, %)			12개월 Fwd	
			컨센서스	1주일 변화율	상승여력	PER(X)	PBR(X)
A011760	현대상사	2,646	29,000	-25.6	45.0	n/a	n/a
A088350	한화생명	54,023	8,682	-7.9	39.6	10.3	0.6
A051600	한전KPS	32,895	115,600	-7.7	58.1	16.8	3.5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19,580	13,250	-5.4	32.6	15.4	2.2
A034120	SBS	5,503	47,800	-3.1	58.5	12.7	0.9
A001040	CJ	68,027	326,667	-3.1	39.9	23.4	1.7
A000640	동아쏘시오홀딩스	11,439	266,667	-3.0	11.3	192.1	2.9
A001680	대상	10,685	45,250	-2.5	45.7	12.6	1.3
A000100	유한양행	29,331	338,214	-2.4	28.6	28.2	1.9
A002270	롯데푸드	12,311	1,328,571	-2.2	47.8	18.2	1.3
A012450	한화테크윈	20,800	45,727	-2.1	16.8	28.8	1.0
A002380	KCC	46,185	604,615	-1.8	38.2	17.8	0.7
A030000	제일기획	19,212	26,111	-1.8	56.4	16.8	1.7
A082740	두산엔진	2,161	4,025	-1.8	29.4	N/A	0.4
A001800	오리온	54,741	1,341,875	-1.8	46.5	22.6	3.2
A034730	SK	175,549	337,500	-1.7	35.3	12.2	1.1
A108320	실리콘웍스	4,587	42,143	-1.7	49.4	9.4	1.2
A005440	현대그린푸드	19,492	32,375	-1.6	62.3	30.0	1.4

자료: Fnguide,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LIG Research

리서치본부장
지기호/기술적분석

02)6923-7330
khchi@ligstock.com

투자전략팀	Analyst	내선번호	E-Mail
이코노미스트(총괄)	김유겸	6923-7332	yukyum@ligstock.com
투자전략	윤영교	6923-7352	skyhum00@ligstock.com
계량분석	염동찬	6923-7314	dongchan@ligstock.com
채권/크레딧	유선웅	6923-7353	carpelife@ligstock.com
시황	김예은	6923-7349	yekim@ligstock.com
경제 RA	문다솔	6923-7338	dasol.moon@ligstock.com
퀀트/채권 RA	한민우	6923-7331	mwh7733@ligstock.com
투자전략 RA	신현우	6923-7348	god5892@ligstock.com

기업분석팀	Analyst	내선번호	E-Mail
정유/화학(총괄)	박영훈	6923-7317	houn0715@ligstock.com
철강/금속	김윤상	6923-7319	yoonsang.kim@ligstock.com
지주회사/유통	김태현	6923-7312	thkim@ligstock.com
반도체/디스플레이	신현준	6923-7336	anthony0808@ligstock.com
스몰캡/통신서비스	김인필	6923-7351	ipkim01@ligstock.com
제약/바이오	이무진	6923-7343	c_in_c@ligstock.com
자동차	신재영	6923-7341	jyshin@ligstock.com
은행/증권	은경완	6923-7322	kw.eun@ligstock.com
엔터/레저/미디어	지인해	6923-7315	emalee89@ligstock.com
인터넷/게임	김성은	6923-7350	eunee714@ligstock.com
건설	김기룡	6923-7321	kirykim@ligstock.com
스몰캡	박상용	6923-7323	sean.park@ligstock.com
IT/스몰캡 RA	고의영	6923-7345	keuiy@ligstock.com
지주/유통/금융 RA	강수민	6923-7362	soomin913@ligstock.com
철강/제약 RA	원민석	6923-7313	ethanwon@ligstock.com
엔터/인터넷 RA	윤을정	6923-7318	eyun16@ligstock.com
정유/화학 RA	최선미	6923-7311	serena.choi@ligstock.com

god5892/투자전략팀/20160228190138

▶ Complian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